

# ‘놀이’ 문화에서 ‘수행공동체’로

## 대불어 20주년 맞아 어린이 포교 변화 본격화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가 수행 중심의 포교에 중점을 둔 운영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대불어 주관으로 열린 어린이 여름불교학교에서 좌선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모습.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지현, 이하 대불어)가 ‘레크리에이션’ ‘놀이’ 위주의 지도자 교육에서 ‘수행’ 중심으로 큰 틀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내년이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대불어에 불어온 변화의 바람은 대불어가 운영하고 있는 대한불교교사대학에도 영

향을 줬다. 대불어가 ‘수행 중심의 포교’에 중점을 두게 되면 교사대학은 ‘지도자 교육’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대불어는 4월 9일 지현 스님의 취임식을 계기로 어린이 포교 20년사를 바탕으로 한 큰 틀의 변화를 시작했다. 대불어가 지향하는 큰 틀은 수행과 불교 본연에 충실한 포

교와 교육이다.

우선 매년 2회 실시되는 지도자 연수가 확 달라진다. 6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동안 열리는 올해 연수는 레크리에이션, 놀이 중심의 연수에서 수행과 체험을 통해 지도자 스스로 불교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채워진다. 불교의 본질을 바로 알고, 아는 것만큼 실천하며, 또 그것을 어린이들

### 지도자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중점

### 상반기 실태조사 통한 후원회 결성

### 어린이회관 건립... 발전계획 수립

에게 전할 수 있는 불교 지도자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대불어는 신앙적, 종교적 기본 소양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수행프로그램 개발과 그 프로그램에 맞는 강사진 섭외에 고심하고 있다.

한편 교사대학은 레크리에이션, 구연동화, 인형극 등 어린이 범위 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전문적인 교육에 중점을 둔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사대학을 수료하면 종단에서 수여하는 어린이불교지도사 자격증과 함께 레크리에이션 2급, 구연동화

2급 등의 전문 자격증이 수여돼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인터넷(www.kbct.or.kr) 교육 확대를 통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들의 교육 기회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대불어는 상반기 중으로 사단 법인화를 추진하고 임의단체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최우선 과제는 침체된 어린이 포교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활성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를 위해 실무자들이 각 지역을 순회하며 어린이 법회를 보는 사람을 조사하고 각 사찰의 법회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제작, 어린이 법회의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대불어 총재인 정관 스님을 중심으로 어린이 포교후원회를 결성, 미래 세력 포교의 기반을 닦는 재원 확보에도 나선다.

대불어는 올해를 변화의 원년으로 삼고 어린이법회 시범 운영, 어린이 합창단 창단 등 어린이 포교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회관을 건립, 어린이 법회를 상설화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신인 회장 지현 스님은 “어린이를 스승 삼아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고 그 가르침을 펴는 수행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고 밝혔다. (051)864-4569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천성산 터널공사 진동 소음 민원

### 인근 영산대 학습권 침해 등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 구간의 공사가 재개되면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최근 소음, 진동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인근 영산대는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나섰다.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주민들에 따르면 고속철 천성산터널공사 시공업체들의 발파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공사현장 인근에서 개를 사육하는 한 주민은 터널굴착을 위한 발파 때

에 개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유산하는 등 2천여 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영산대는 지난 1월 25일 터널공사로 교육환경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울산지법에 ‘진입도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학교 측은 터널 진입로가 최근 신축한 영산대 천성학관에서 직선거리로 400m 밖에 떨어지지 않아 발파 등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학습권의 침해를 받을 소지가 높으며 공사용 진입도로의 노선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천미희 기자

### 해인사 팔만대장경 정대불사

해인사(주지 현승)가 제4회 해인사 팔만대장경 수호 정대불사를 봉행한다.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봉행되는 팔만대장경 정대불사는 17일 오후 4시 시련을 시작으로 해인, 종목, 해능 스님의 해인삼매법문, 대령관유, 영가천도, 폐불봉안, 정대법회 순으로 진행된다.

조선 태조 7년(1398) 팔만대장경을 강화도에서 해인사로 이전할 때 많은 신도들이 경관을 머리에 이고 옮기면서 유래된 해인사 팔만대장경 정대불사는 팔만대장경을 수호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1961년 이후 해마다 봉행되어 왔다.(055) 934-3105 배지선 기자

### 부산 청량사, 극락보전 낙성



부산 청량사(주지 현업)는 4월 3일 극락보전 불사이운 및 낙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청량사 주지 현업 스님은 “청량사 극락보전의 완성으로 더욱 여법한 가람을 가꾸어 여러 불자들이 공부하기 좋은 최상의 도량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향된 극락보전 불사는 2년 전 시작돼 25평 규모로 완공됐으며 앞으로 요사채, 구한말 서예와 여산, 화엄화 등으로 유명한 명문 흥경 스님의 서예작품과 자료를 전시하는 명문기념관, 지장전 등을 중창하게 된다. (051)271-2774

천미희 기자

### 선운사, 재적승 모임 창립

승가의 올바른 수행풍토 조성과 대종교회를 위한 ‘선운사의 미래를 여는 재적승 모임’이 4월 2일 창립했다.

선운사 대웅전에서 열린 이날 창립법회에는 대우(전 선운사 주지), 법경(종회의원), 해오(개암사 주지), 선법 스님(문수사 주지) 등 재적승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장으로 추대된 법경 스님은 인사말에서 “문중화합을 통해 선운사의 선풍을 진작시키고 중생교화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준엽 기자

### 영남불교대, 삼성현 추모법회

영남불교대학 관운사 경산도량은 4월 3일 경산이 배출한 위대한 스승인 삼성현(三聖賢·원효대사, 설총, 일연 스님)을 기리는 삼성현 추모 대법회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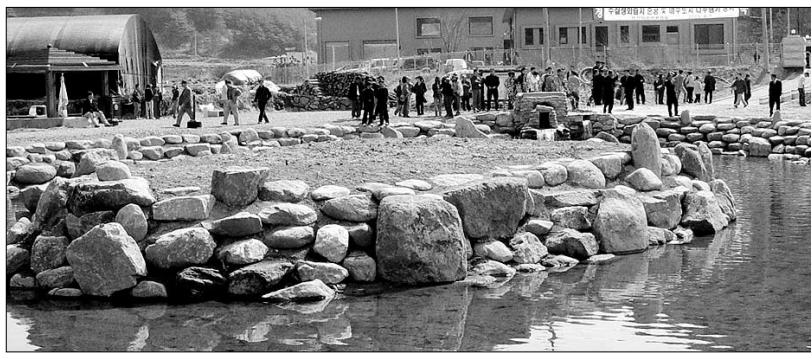
6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봉행된 법회는 식전 축하공연, 개회선언, 동문회장 환영인사, 육법공양 반야심경 삼귀의, 회주 우학 스님 법문으로 이어졌다. 우학 스님은 이날 삼성현이 태어난 ‘경산’을 재조명하고, 삼성현의 뜻을 이어 불자로서 가져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 법문했다. 배지선 기자

### 인터넷카페 하루연전

인터넷카페 하루연이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대구불교회관 1층 불교전문갤러리 목련에서 제2회 회원전을 연다.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하루연 카페 회원 및 대구 수성구 보현암 신도 약 30여명이 출품한 시, 서화, 서각, 사진 등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며, 일상의 내면의 사유와 성찰로 불심을 담아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루연은 선전 스님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로 2001년 개원 이래 2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온라인상에서 생명, 평화, 환경이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다. (053)427-5114 배지선 기자



순천 송광사와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송광사 입구 신명천에 연꽃을 이용한 수질정화습지를 조성, 4월 1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 “지역 수질보호 불교계가 앞장”

### 송광사, 주암호에 연꽃이용 정화습지 조성

광주전남지역 최대 상수원인 주암호 상류에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을 이용한 인공습지가 조성됐다.

순천 송광사(주지 영조)와 영산강 유역환경청(청장 신원우)은 4월 1일 송광사 입구 신명천에서 수질정화습지 준공식을 갖고 생태보전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서 신원우 영산강 유역환경청장은 인사말에서 “광주 전남의 생명수인 주암호 수질보호를 위해 지역사회와 불

교계의 적극 참여에 감사한다”며 “정기 정화활동, 나무심기, 캠페인 등 주암호 수질보전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언했다.

주암호보호협의회 공동의장 현교 스님도 축사를 통해 “수질보호를 기계적 시설에만 맡길 수 없다”며 “생태습지 조성으로 민약의 사태에 대비해 광주전남 주민의 60%가 식수로 사용하는 주암호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엽 기자

## 경주 남산 마라톤대회 찬반 대립

### 불교계 - 가치 널리 알리는 일 시민단체 - 문화유산 훼손

불교계가 추진하는 경주 남산 산길 마라톤대회를 두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불교계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경주남산연구회, 경주 남산 지킴이, 경주 환경운동연합 등 경주지역 9개 시민·문화단체로 구성된 경주시민연대는 3월 24일과 4월 6일 두 차례의 성명서를 내고 5월

29일 열리는 경주남산 산길 마라톤대회는 세계문화유산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주남산연구회 김구석 소장은 “2천여 명의 마라톤러들이 산길을 뚫던 땅이 울리면서 산길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주 남산 산길 마라톤 대회를 공동 주최하는 직지사, 동화사, 은혜사, 불국사, 고운사 등 조계종 5개 교구본사는 “사적지에서 걸으면 관공로 뛰면 안 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오로지 산길 마라톤 대회는 남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더욱 빛나게 하는 행사”라고 말하고 있다.

마라톤대회 상임운영위원장 진오 스님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행사를 반대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공개토론이 필요하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불교계는 문화재청에 행사 개최가 부를 상의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경주시민연대도 이에 맞서 문화재청에 행사를 저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이준엽 기자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천미희 기자

# 송광사 삼월불사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16국사의 도량, 승보종찰 조계산 송광사는 보조국사이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청정승가의 수행과 화합의 정신인 목우가품을 계승해 왔으며 국제 선양과 함께 수련회를 통하여 국내외에 한국불교의 위상을 널리 선양해 왔습니다. 이번 삼월불사에는 보조국사 종재 대법회를 봉행하고 보살계 수계 산림을 성대히 갖고자 합니다.

이 승승한 불사에 사부대중들의 수회 동참을 바라면서 이 인연공덕으로 다같이 복해가 구축하고 큰 깨달음을 이루어 모두 성불하여지이다.



1. 일 시 : 불기 2549(2005)년 5월 4일(음 3.26) ~ 5일(음 3.27) 2일간

5월 4일	5월 5일
◇ 오후 10시 : 전계식	◇ 새벽 3시 : 새벽예불
◇ 오후 3시 : 보살계 입재식	◇ 새벽 4시 : 보살계 법문
◇ 오후 4시 : 박물관 특별전 개막식	◇ 오전 7시 : 보살계 법문
◇ 오후 7시 : 보살계 법문	◇ 오전 9시 : 보살계 수계식 및 법성도 요잡 의식
◇ 오후 8시 : 전국 불일회 및 21교구 신도회 총회	◇ 오전 11시 : 보조국사 종재
◇ 오후 10시 : 철야정진	◇ 오전 11시 30분 : 영가천도재

2. 동참방법 : 삼월불사나 사천왕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송광사 증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송광사 증무소 061)755-0107 ~ 9 / FAX 061)755-0408

3. 동 참 금 : ● 삼월불사 보살계 수계동참 : 30,000원, 영가천도 동참금 : 10,000원

· 보살계 · 영가천도 동참금 계좌번호 : 501676-01-001415 우체국 (예금주 : 송광사)

● 사천왕 불사 동참금 : 300,000원

· 사천왕 불사 동참금 계좌번호 : 501676-01-001352 우체국 (예금주 : 송광사)

## 승보종찰 송광사 주지 영조 합장